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여성 속옷의 디자인 분석에 관한 연구

이 서 희 · 김 현 주*

건양대학교 의상, 아동학부 조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고대부터 현대까지 속옷은 특히 여성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착용목적이 존재하고 있지만, 미를 추구하려는 끊임없는 욕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패션에서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갖고자하는 모든 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실제로 아름다운 실루엣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여성의 내재된 욕구의 표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여성 속옷의 특성을 각 시대별 속옷의 디자인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자료를 토대로 한 문헌연구와 각 참고자료를 통해 수집된 그림자료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실루엣의 변화는 새로운 속옷의 형태와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기초 직선형의 실루엣이 등장하면서 인체의 자연적인 실루엣에 맞는 자연스러운 라인의 코르셋을 착용하였고, 테일러드 수트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을 때 여성들은 몸에 꼭 끼는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둘째, 소재의 개발은 속옷의 기능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기 후반은 속옷의 소재부분 전반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탄성섬유, 특히 라이크라는 체형을 강조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기능성과 단순성을 추구하는 속옷의 디자인을 가능케 해주었고, 또한 1940년대에는 속옷의 형태성과 기능성이 수행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로 실용성이 강조된 단순한 디자인의 언더웨어가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속옷의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스포츠의 열풍으로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캐미솔 드레스나 피팅 드레스가 선보였고 박서 쇼츠(boxer shorts), 바디 스타킹(body stocking), 스포츠 브라와 같은 아이템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겉옷에도 나타나 코르셋, 울인원, 브래지어, 가아터 벨트에서 모티프를 얻어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선보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의 변화가 다양하고 신속해짐에 따라 속옷에서도 형태나 종류, 소재와 색상 등에서도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20세기 이전에서도 보여졌듯이 실루엣의 변화에 따라 겉옷의 형태를 보정해 주는 속옷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사회참여에 따른 여성들의 의

식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종류와 형태,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장식의 극대화 및 축소화 등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